

화해분위기를 해친다

최근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들이 《북군동원전력사령부》라는것을 창설하였다. 《향토예비군》 창설 50년을 계기로 창설한 《북군동원전력사령부》는 제3야전군사령부의 독립부대로 편성되었다. 사령관과 참모장, 3개의 작전참모처, 3개 실로 구성되었으며 기본임무는 전쟁초기 긴급히 투입할 16만여명의 예비군을 동원준비시키는것이라고 한다. 지금 남조선군부당국은 《북군동원전력사령부》가 창설됨으로써 예비군지휘체계의 단일화를 실현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예비군을 정예화하겠다》, 《예비군전투력을 극대화할것》, 《전쟁승리의마중물역할을 하게 될것》이라고 떠들어대고있다. 결국 《북군동원전력사령부》의 창설은 《향토예비군》을 조직정비하여 유사시에 비전투력으로 적국 썰먹으려는 북침전쟁준비책동의 일환이다.

이러한 군사적움직임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흐름과 북남화해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지나온 나날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동족사이의 대결로 손해볼것은 우리 민족이고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조선반도에서 평화적환경을 바라지 않는 외세뿐이다. 앞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화해에 대해 떠들고 돌아 앉아서는 불순한 군사적대결놀음에 매달리는것은 안팎이 다른 처사로서 현 정세의 요구와 우리 민족의 통일지의와 지향에 역행하는 매우 불순한 행동이 아닐수 없다. 화해의 흐름과 전쟁책동은 량립될수 없는 법이다. 본사기자 김련옥

최근 조선반도에서는 북남관계개선분위가 날로 고조되고있어 민족의 통일열망이 뜨겁게 달아오르고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를 헐뜯으며 악담질을 일삼고있는 무리가 있으니 다음아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악질보수패당들이다. 《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를 비롯한 보수패당은 화해와 협력에도 급격히 치닫고있는 북남관계분위기에 대해 《북의 거짓말과 청와대 주사파들의 정략적목적때문에 나라가 파국에 가고있다》, 《현 (정권) 이 남

시대적흐름에 역행하는 대결병자들의 추태

북위장평화소를 벌리고있다》 등의 속이 뒤뜰린 고약한 망발을 련일 췌쳐대고 있다. 이것은 평화와 통일로 향한 즐거운 시대의 흐름에서 밀려나 력사와 민심의 배척을 받고있는 대결병자, 정신이상자들의 단말마적말약이다. 동시에 공화국에 대한 적대의를 고취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련북통일기운을 억눌러보려는 반민족적추태이다. 《그야말로 못된 버리지 장관방에서 모로 가는 격이다. 현시기 북남관계에서 일어

나고있는 경이적인 사변들은 지난해말까지만 하여도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일들로서 온 겨레는 물론 국제사회의 열렬한 환영과 지지찬동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조선반도에 떠돌던 불신과 대결의 맹기는 공화국의 통이 큰 결단과 뜨거운 민족애, 투철한 평화수호의지에 의해 불발의 눈적이처럼 녹아버리고 오늘 북과 남사이에는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뜨겁게 달아올라 북남관계개선분위기가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 사뭇쳐호르는 강물에 돌팔

매질을 한다고 그 흐름을 막을수 있겠는가. 한중도 못되는 시비군들이 악담질을 해낸다고 하여 결코 력사의 흐름을 가로막을수 없다. 그럴수록 오히려 대결과 불신을 추구하는 역적무리로서의 정체만이 더욱 뚜렷이 드러나고 저들의 종말을 앞당기게 될것이다. 집권기간 극악한 동족대결정책을 추구하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 보수집권자들의 비참한 말로가 그것을 잘 보여주어주고있다. 오늘 북남관계개선분위

를 해치려고 미쳐날뛰는 남조선보수패당의 추악한 행태를 놓고 남조선인심이 침을 뱉고 등을 돌려대고있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동족대결에 환장을 하던 필경 모든것이 거꾸로만 돌아가 지향하는 평화와 통일의 시대적흐름에 역행하여 발버둥치는 대결병자, 정신이상자들에게 차려질것이란 민심의 저주와 배격뿐이다. 본사기자 서희

를 해치려고 미쳐날뛰는 남조선보수패당의 추악한 행태를 놓고 남조선인심이 침을 뱉고 등을 돌려대고있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동족대결에 환장을 하던 필경 모든것이 거꾸로만 돌아가 지향하는 평화와 통일의 시대적흐름에 역행하여 발버둥치는 대결병자, 정신이상자들에게 차려질것이란 민심의 저주와 배격뿐이다. 본사기자 서희

창피스러운 입방아질을 그만 쥘어야 한다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우리 민족공동의 대사로 성과적으로 치러진후에도 남측의 예술단, 태권도시범단의 공화국방문 등으로 북남관계개선분위가 계속 이어지고있다. 이러한 정세흐름을 두고 우리 겨레는 물론 세계진보적인인민들과 국제사회도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남조선의 보수패당자들은 아직까지도 북남사에

라는 고약한 나발을 계속 불어대면서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막아보려고 악을 써대고있다. 북남관계개선이 이루어지는것을 가장 배아파하고있는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올해 초에 북남고위급회담이 진행되었을 때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를 당사자인 남북이 대화로 해결한다는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우리 민족끼리의 대화는 어떤 식의 통일이든지, 어떤 회생을 치르든지 평화면 된다는 북의 논리가 말려든것》, 《북은 변화지 않으며 대화를 통한 평화론의는 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하였다. 지어는 온 겨레가 통일에 대

한 희망과 기대를 안고 활기있게 전진시켜나가던 6.15 통일시대를 모독하면서 《현 (정부) 가 또다시 북의 핵무기완성을 위한 시간벌기전략에 놀아난다면 력사의 죄인이 될것》이라는 악담질도 서슴없이 해냈다. 최근에도 《자유한국당》대표라는자는 《현 (정부) 가 남북위장평화소를 추진하는 목적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 (한) 미군 철수, 낮은 단계 량방제로 가기 위한 체제변혁 시도》, 《나라의 체제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개헌정책에 대해 당의 명분을 걸고 막을것》이라고 북남대화국면을 악의에 차서 헐뜯었다. 이것은 평화와 통일로

향한 즐거운 시대의 흐름에서 밀려나 력사와 민심의 배척을 받고있는 대결병자, 정신이상자들의 진실을 오도하는 악설이며 모처럼 마련된 대화분위기를 깨버리려는 홍심의 발로이다. 다 아는것처럼 공화국은 새해정초부터 북남관계대진환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과격적인 조치들을 련이어 취하였다. 이에 따라 북남관계개선분위가 높아지게 되고 조선반도정세흐름이 좋게 발전하는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게 되었다. 이를 현실로 목격했기에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물론 국제사회까지도 조선반도평화보장을 위한 공

화국의 주동적이며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마련되는 북남수뇌상봉과 회담, 조미대화를 열렬히 지지환영하고 있다. 헛나발군들은 세상이 누구에 의해 돌아가며 대세의 원류가 어디서 솟아났고있는가를 똑바로 보고 창피스러운 입방아질을 그만 쥘것이 좋을것이다. 한중도 못되는 시비군들이 쓸라닥질을 해낸다고 하여 결코 력사의 흐름을 멈추어세울수 없다.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온 겨레와 국제사회가 저들의 나쁜 행태에 침을 뱉고있는것을 똑바로 알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리철민



남조선단체들 제주4.3사건에 대한 미국의 사죄를 요구

남조선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제주 4.3희생자유추회와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사건 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7일 서울의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제주도인민들에 대한 대학살을 지휘한 미국을 규탄하였다.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온 겨레와 국제사회가 저들의 나쁜 행태에 침을 뱉고있는것을 똑바로 알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리철민

서한은 4.3사건은 미군정과 미군사교문단이 남조선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던 시기에 감행된 사건으로 당시 수만명의 제주도인민들이 억울하게 숨졌다고 밝혔다. 1948년 4월 3일 이후 제주지구 미군사령관으로 임명된 장교가 현지의 모든 진압작전을 지휘한데 대해 까탈하면서 서한은 이것은 미군정이 대학살을 직접 주도하였다는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실자료이라고 규탄하였다. 서한은 또한 미군정이 초로화작전이 진행되는 기간 정찰기를 동원하고 《토벌대》에 무기와 장비도 적극 지원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이 자료들은 미국이 결코 4.3학살의 책임을 회피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서한은 제주도인민들을 대량학살한 책임은 리승만 《정부》와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서한은 전쟁을 제외하고 세계 그 어느 지역에서도 이러한 대학살참극이 벌어진적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정부가 70년이라는 기간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아무런 사죄도 없었다고 하면서 서한은 즉시 4.3학살사건의 책임에 대해 성실한 태도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제주 4.3희생자유추회 회장은 미국대사관측이 공개해당습수를 거부한데 항의하여 통성투쟁에 돌입하였다. 본사기자



우심해키는 공국주의 부활책동

최근 일본에서 군사대국화책동이 더욱 로골화되어 내외의 비난과 우려, 경계심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얼마전 일본은 룡상 《자위대》에 군사작전지휘를 총괄하는 《룡상총대》를 조직하고 《일본관해병대》로 불리우는 《수륙기동단》을 내내 이어 4월 7일에는 나가사키현의 사세보에서 《수륙기동단》발족식을 열고 심탈 환훈연을 벌려놓았다. 그런가 하면 최신형의 공격잠수함 《세이류》호와 소해함 《히라도》호의 취역식을 련이어 진행하고 해상 《자위대》호위함 《이즈모》호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들어갔다. 일본방위성은 《이즈모》호에 긴 활주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F-35B》와 같은 최신예전투기들을 탑재할것을 꾀하고있다. 항공모함보유는 무력행사포기와 전투력보유를 규제한 일본의 현행헌법에 위

반된다. 동시에 일본이 늘 표방해오던 《전수방위》의 원칙과도 거리가 멀다. 《이즈모》호는 20세기 전반기 일제가 대륙병탄에 동원한 사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로부터 아시아나라들속에서는 그의 후신인양 같은 이름을 달고 출현한 《이즈모》호를 두고 공국주의 과거를 부활시키기 위한 시도로 보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일본의 무력증강책동은 이뿐이 아니다. 일본은 올해 중으로 《F-35A》 전투기 10대를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미군수산업체인 록히드 마틴회사에서 42대의 《F-35A》 전투기부품들을 들여와 일본 미쓰비시사에서 최종조립을 다치고있다. 지금 일본은 룡군, 해군, 공군의 《자위대》 무력을 공격형무기로 무장시키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한편 현행헌법을 뜯어고쳐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들려고 꾀하고있다. 일본자민당이 지난 3월전당대회에서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한다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그 실례가 되었다. 헌법개정안은 《전쟁포기와 전력비보유를 규정한 헌법 9조 1,2항을 사문화》 하는것으로서 해외침략을 정당화하는 《집단지자위권》의 전면적행사를 위한것이다. 이런 속에서 지난 5일 일본당국이 지금껏 없었다고 주장해온 룡상 《자위대》의 이라크파병당시 비밀보

고문서가 공개되고 뒤이어 항공 《자위대》에도 관련 문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어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자 아베가 사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날로 우심해키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책동과 헌법개정놀음은 《보통국가,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것으로서 십나라속속들의 제침책동이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지금 현 일본당국은 진퇴양난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수상 아베의 부정부패행위가 여지없이 폭로되어 지지들이 급속히 흔들박질하고있는 속에 현 일본당국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이에 당황한 일본당국은 국민의 이목을 떠내려 돌리고 정치적위기에 벗어나 보려고 공국주의부활책동에 더욱 광분하고있는것이다. 지난 세기 침략전쟁에 광분했던 《황군》과 다름없는 전쟁무력으로 급속히 재편성되고있는 《자위대》가 《대동아공영권》의 옛 야망실현을 위해 조선반도와 아시아나라들에 제침의 군화발을 내딛게 되는것은 시간문제이다. 지금 일본당국은 조선반도에서 불어오는 화해와 평화의 훈풍에도 저들의 군사대국화야망이 물거품으로 될가봐 극도로 불안해하면

서 제침의 칼을 더욱 미친듯이 갈고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자에게는 미래가 없으며 최악의 전철을 밟는자들에게는 더 큰 벌이 따르게 된다 이것은 력사의 교훈이다. 일본이 대세의 흐름을 막아보려고 공국주의광풍을 발악적으로 불어올수록 고립과 멸망의 함정에 더 깊숙이 처박히게 될뿐이다. 일본은 공국주의부활책동에 고도로 관심을 높이고있는 세인의 눈초리가 저들을 주시해보고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량명천

산송장들의 마지막발버둥질

지난 6일 남조선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대형부정주 문행위의 장본인인 박근혜에 대한 1심선고공판에서 역대 24년에 24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날에 있는 재판에서 박근혜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18개 공소사실 가운데서 16개가 유죄로 판결되었다.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은 《박근혜는 전두환과 로태우에 이어 세번째로 유죄판결을 받고 력사에 오점을 남긴 전직 (대통령) 이 되었다》, 《박근혜에 대한 민심의 분노

와 혐오감이 매우 크기때문에 그가 항소한다고 하여도 형량은 달라지지 않겠지》이라고 평하고있다. 남조선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민주개혁정당들과 각계종도 이번 재판결과를 두고 《초월민심을 반영한 당연한 판결이다》고 하면서 역대년에 대한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대형 부정추문사건의 장본인인 박근혜는 반성은커녕 항소한다 어쩐다 하며 더욱 뻔뻔스럽게 놀아내고 《자유한국

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은 《사랑을 받던 공주를 마녀로 만들수도 있는것이 정치인가》, 《《뺨을 때려서 용납할수 없다》고 고아대면서 역대년에 대한 선고에 반발해나서고있다. 박근혜역에도 대한 판결은 극악한 사대매국행위와 동족대결책동, 전대미문의 반인민적악당과 부정부패행위로 민족앞에 천추에 씻을수 없는 만고죄악을 저지른 천하역적에 대한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징벌이다. 박근혜때만이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 한것이란 남조선을 중세기적인 파쇼암흑천지로, 민생과 인권의 폐허지로 전락시키고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대결과 침략전쟁책동에 미쳐날뛰며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은것뿐이다. 보수패거리들이 박근혜역도 비호두둔하고 양말질을 해대는것은 역대년의 손발이 되어 남조선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거역하며 온갖 범죄행위들을 저질러온 공범자들의 역스러운 추태로서 그야말로 도적기 매를 드는 격의 뻔뻔스러운 망동이다. 하긴 《자유한국당》으로 말하면 특등범죄자인 박근혜와 함께 이미전에 청산되었어야 할 반역정치와 부정부패의 총본산이다. 박근혜역도가 《비선실세》들을 끼고 《국정》통단과 부정부패범죄를 일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를 묵인

조장한것도 《자유한국당》이며 최순실과 그 족속들이 박근혜를 인형처럼 조종하며 제멋대로 날치는데 대해 모르쇠를 하여 남조선의 정국혼란을 부추긴것도 이 당패거리들이다. 《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와 김문수, 리인제, 김태호를 비롯한 역적당의 지방자치제선거후보로 나선자들은 하나같이 박근혜역도를 싸고들며 갖은 죄악을 저지른 공범자들이다. 남조선인민들앞에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골백번 빌어도 써린치 않을 천하의 역적무리, 박근혜와 같은 특등공범자들이 아직도 머리를 쳐들고 《정치보복》 나발을 불어대고있으니 남조선인심이 어찌 격분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박근혜에 대한 선고는 결코 역대년 하나에 국한된것이 아니다. 그것은 제명을 다 산 보수세력집반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징벌이다. 남조선인민은 보수에게 침을 뱉고 등을 들렀으며 보수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은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특등범죄자들을 싸고들면서 꺼져가는 잔명을 부지해 보려고 최후발악하고있는 보수패당의 추악한 망동은 민심을 거역한 보수역적무리들에게는 추호의 타협이나 용서가 있을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어주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